

# 57년간 동참... “참회하며 국난극복 염원”



### 전필애 보살님의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이야기’

“그 당시는 어려움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기고자 노력했어. 젊었을 때이니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났죠. 자운 스님은 정말 생활(生佛)이셨고 함께 동참하는 큰스님들을 볼 때 환희심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자글거리는 얼굴의 주름조차도 아름다웠다. 올해 90세인 전필애(법호승·부산 초읍) 보살은 걷기조차 힘든 노구를 이끌고 자식을 몰래 삼천배 삼천배 참회기도에 참여했다.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에서 봉행하는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가 시작됐던 1951년 당시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동참한 산 증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감로사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삼천불 삼

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했다.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의 역사는 57년 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국난을 참회기도로 극복하고자 불자들이 전국에서 감로사로 모였다. 자운 스님을 비롯해 정담 운허 영암 성철 학곡 석암 율하 벽암 지관 일타 월산 법전 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것이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이다.

전필애 보살은 삼천배 참회기도법회의 시작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 당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회기도를 시작하며 모인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 참회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위로를 받았어요. 이곳은 국난을 이기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곳이었죠.

참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두들 스님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참회기도로 정진했죠. 전 참회기도에 동참하고 난 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집에서 삼천배를 올렸죠.”

감로사의 삼천불 삼천배 참회법회는 단순한 참회기도법회가 아니었다. 부처님의 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원력을 모아 역사의 아픔을 가진 민족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법회였다. 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며 국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스님들의 원력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 당시 자운 스님은 참가한 우리를 보고 입장을 소멸하기 위해 절을 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전생부터 오랜 세월동안 이어온 입장을 소멸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57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법회. 올해도 어김없이 출가 열반 주간에 삼천배 법회가 열렸다.

이나 그때나 모두 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빠짐없이 참회기도를 올려야 해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정진의 끈을 놓지 않고 참회기도를 올리겠다는 전필애 보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며 모두를 감싸 안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감로사는 매년 음력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삼천불 삼천배를 봉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지 혜총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법사스님을 초청해 참가한 불자들에게 법문도 한다.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 3시 30분 일어나 참회기도, 영가천도, 법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진한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 존사

창원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

## “시대 따라잡아야 포교 가능”

출가가 있어 성도(成道)가 있고 팔만사천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 출가를 통해 범부의 삶은 수행자의 삶이 되고 정진을 통해 성도에 이르게 된다. 음력 2월 8일 출가일부터 15일 열반일까지 불자들은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진열정을 다잡는다.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는 매년 ‘출가에서 열반까지’ 너르바나 정진 대 설법회(이하 설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설법회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능불자들의 활동을 돕고 보리수 학교, 골림씨 어린이법회 및 톨비니유치원 운영 등 어린이 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원정 스님은 수행 포교 뿐 아니라 문화행사에도 주목했다. 매년 산사문화축제 고평 산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진열정을 다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주사를 찾을 때 마음 내려놓고 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 찾집도 마련했지요. 지역에 이바지하고 안으로는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튼튼한 사찰로 거듭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법문의 자리를 펼쳤다. 8일 동안 경남 일대에서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설법회는 성주사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이 모여 템플스테이 겸 발우공양, 정진의 시간을 조촐하게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있지요.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큰스님 법의 공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정진하고 더욱 정진하자는 의미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은 3월 19일 설법회를 개최하고 이어가는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성주사가 불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수행 프로그램은 설법회만이 아니다. 불교포교와 올바른 정진을 위해 일선에서 매달 색다른 정진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앞서가고 있다. 또한 GM대우 자동차 법우회, 두산인프라코어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법문의 자리를 펼쳤다. 8일 동안 경남 일대에서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설법회는 성주사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이 모여 템플스테이 겸 발우공양, 정진의 시간을 조촐하게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있지요.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큰스님 법의 공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정진하고 더욱 정진하자는 의미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은 3월 19일 설법회를 개최하고 이어가는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다. 성주사가 불자들을 위해 마련하는 수행 프로그램은 설법회만이 아니다. 불교포교와 올바른 정진을 위해 일선에서 매달 색다른 정진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앞서가고 있다. 또한 GM대우 자동차 법우회, 두산인프라코어 등



템플스테이 겸 정진 시간으로 시작 어린이 포교도 주력, 문화행사 열어

하성미 기자

## “대승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 창립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가 3월 19일 창립됐다.

대승불교의 정신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한국대승 불교실천연합회가 창립됐다.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회(상임 대표 유심)는 3월 19일 창립법회를 열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실생활에 구현하자”는 의지를 천명했다. 상임대표 유심 스님(관음정사 주지)은 “모든 사부대중이 어울려

함께 정진하는 장소로 성장할 것이다”며 “이거적이고 폭력이 난무하는 말법시대에 모든 사부대중이 노력하여 불국토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립법회에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관음정사 조실 법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 부모님을 생각하는 신춘불교음악회

3월 30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강당

한국예술인연합회(회장 해인)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불교음악회를 개최한다. 3월 30일 오후 7시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대중에게 법문하며 법진 스님이 법배와 경기민요를 접목한 창작곡을 최초로 발표한다. 경기민요 출연자는 김예현 외 50여명이다. 또한 희심곡과 품바 및 산화가로 전하는 불교내용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전하고 이해하도록 나눌 예정이다. 그 외 합창단, 대금산조, 바라춤, 탐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법진 스님은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은중경>은 모두가 알고 있는 효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점차 실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부처님의 경전을 잘 이해하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10-4233-3459 하성미 기자

## “황우석 박사의 진실은 무엇?”

2년 전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의문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 지역본부(본부장 원

범)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는 3월 27일 오후 7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正見-황우석의 진실’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가정의학 전문의 정민권 원장(아주병원)이 ‘줄기세포사태에 대한 임상학적 접근’을 발표한다. 이어 정실현 박희섭 회장이 ‘특허로 풀어보

는 줄기세포의 본질’을,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장 김성진 교수가 ‘낙태변조된 서울대 보고서 8쪽에 담긴 진실’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물 온열복대

온열기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인증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 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열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물 온열복대**는 속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게온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물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이렛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대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